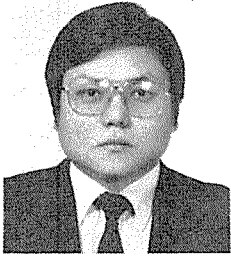


低油價時代の 에너지政策變化



尹 萬 鎬

(韓國産業銀行·調查部)

I. 油價下落的 背景 및 展望

1. 背 景

어려운 것 없고 두려운 것 없어 보이던 석유카르텔 OPEC의 威力이 점차 衰弱해지고 있다. 82年 3月 第63次 OPEC總會때만 하더라도 生産上限線(1,750萬B/D)을 策定하고 基準油價를 單一化하여 生産 및 價格카르텔로서의 低力을 과시하던 OPEC가 創設 以後 23年만에, 그리고 第1次 오일쇼크가 惹起된 지 纔 10年만에 붕괴 危機에 直面할 정도로 昏迷를 거듭하고 있다.

最近 1~2年の 石油情勢를 보면, 世界石油需要는 先進國의 景氣回復 遲延 및 石油消費 利用合理化 등으로 계속 減少趨勢를 보여 왔고, 이에 反하여 産油國들은 産油量을 적절히 調整하여 対応하지 못하여 왔음이 事實이다. 이로써 原油의 現物市場價格은 公示價格水準을 下廻하고 있으며, 消費國들은 現物市場을 選好하고, 産油國들은 公示價格販賣를 위하여 努力하는 樣相을 띠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OPEC는 이와같은 現今의 供給過剩現象과 油價引下壓力, 超過生産과 政治的 對立 등 對內外的인 諸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OPEC 石油相 特別協議會('83.1.23~24)

를 開催하였으나, 産油 및 油價政策에 어떠한 合一點을 찾는 데에도 모두 失敗하기에 이르렀다. 同會議의 外形的인 意見對立은 페르샤灣 産油國과 아프리카産油國의 Differential 調整問題에 焦點이 맞추어졌으나, 同會議의 決裂은 첫째, 石油價格카르텔로서의 OPEC 機能이 大幅 弱화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며, 둘째, 基準油價(A/L 基準: 34\$/Bbl) 維持努力이 限界에 達하여 비록 一時的이나마 低油價時代의 到來를 예고하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2. 油價下落的 展望

油價下落的은 供給過剩現象 以後 割引販賣 등 여러가지 形態로써 잠재적으로 나타나다가 82年 以後 現物市場을 中心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82年 1月, 公示價格 水準을 維持하던 사우디産 아라비안 라이트의 現物市場價格은 83年 1月에는 30달러線으로 下落하였고, 제네바 特別協議會가 決裂된 後에는 28달러 線에서 去來되고 있다. 결국 既存의 世界石油市場의 構造的인 油價下落的要因에다 제네바 特別協議會 以後에 發生된 油價下落的要因이 더하여져 世界 原油 價下落的에 壓力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表-1)참조)

○ 現物市場價格推移(Arabian-Light 基準)

1982.1	1982.8	1983.1	1983.2
34.0\$/B	33.0	30.4	28.0

(表-1) 油價下落的 諸要因

既存石油市場의 構造的 要因	제네바 特別協議會 以後 發生要因
○世界石油需要의 減少 - 脫石油化의 推進 - 에너지消費節約의 推進	○사우디의 增産發表 - 經濟運用に 必要한 量의 增産公表
○OPEC 供給過剩 - 國別生産쿼터量의 不履行	○북해産油價引下 (83.2.1) - 35.0\$/B→30.5\$/B
○非OPEC의 增産 - 멕시코 等의 財政逼迫	○나이지리아産 原油價 引下 (83.2.1) - 35.5\$/B→30.0\$/B
○政治的, 宗教的 利害相衡	○油價下落到 대한 期待로 備蓄需要減退 ○봄철非需要期進入에 따른 需要減退

油價展望에 대한 核心은 基本的으로 OPEC 會員國間의 結束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나, 現在로서는 相互間의 利害가 여러가지 側面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段階別로 조심스러운 展望을 하여 볼 수 있겠다.

우선 第1段階는 最大産油國인 사우디아라비아가 油價防禦를 위하여 強力하게 対応하고 各國의 在庫放出만이 계속되는 경우이다. 이 段階는 이란 등 一部 OPEC 産油國이 生産쿼터量을 超過하고 非OPEC 産油國들의 增産이 약간 持續될 경우로서 原油價는 30달러/배럴 水準까지 下落할 것으로 보인다. 第2段階는 이란-이라크戰이 終結되어 画國의 生産이 急增하거나 OPEC가 油價防禦에 失敗하는 경우로서 油價는 25달러/배럴線까지 下落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第2段階에서 內紛이 激化되어 무질서한 價格引下 競争에 突入하게 되면, 油價는 더욱 下落할 可能性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世界는 소위 逆오일쇼크 衝擊을 우려하여야 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産油國들의 立場으로 볼 때, 大幅인 油價引下는 自國經濟에 致命的인 타격을 입히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이기 때문에 「最後의 協商水準」을 各國은 保持하고 있을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OPEC는 런던에서 OPEC 13個國 全體會議('83.3.8~14)를 開催하여 油價引下合意를 試圖할 계획이다.

II. 油價下落在 미치는 部門別 影響

1. 經濟部門

幅 輕減되어 國際收支 특히 貿易收支改善에 크게 寄与하게 된다. 82년에는 6%의 經濟成長도 不拘하고, 에너지消費는 前年對比 0.4%가 減少하는 강력한 에너지節約 推進으로 原油 및 石油製品 輸入額이 年初計剛보다 11億달러가 節減되어 貿易收支改善에 기여하였는데 原油價格이 下落되면 83年の 原油輸入 負擔은 더욱 輕減될 것이다. 油價가 4달러/배럴 (A/L基準) 下落할 경우, 原油導入額은 年間 約 7億달러가 減少될 展望이다.

油價下落后은 또한 物價安定에도 寄与하게 된다. 原油價格이 내리면 國內 石油類價格이 引下되고 또한 關聯工產品價格이 下向 調整되어 國內 物價上昇 鈍化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 全般的인 投資活動의 再開로 말미암아 生産活動이 活潑해지면 Demand-Pull物價上昇要因이 除去되어 物價上昇要因이 소멸하게 된다.

實質 GNP의 上昇效果가 있게 된다. 油價下落后은 物價上昇鈍化에 따른 實質所得의 增大 效果를 나타내게 되고, 世界的인 景氣回復과 더불어 交易의 擴大를 誘發하게 된다.

한편 油價下落在 國內經濟에 미치는 次要因도 없지 않다. 즉 産油國 오일머니의 國際金融市場 流入 減少로 우리 나라의 外資 借入 与件이 多少 不利하여진다거나 産油國의 外換事情 惡化로 中東의 海外建設 및 商品輸出이 減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油價下落后은 景氣回復 의욕에 대한 經濟主体別 意識構造 高揚과 企業의 投資마인드를 造成하는데 決定的인 역할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産油國으로의 莫大한 所得移轉이 縮小되어 國內 有效需要를 誘發할 것이므로 國內經濟部門에 플라스要因 (Plus factor)으로 作用할 것이다.

2. 産業部門

國內 産業은 그 동안 重化學工業化를 推進하여 온 過程에서 에너지依存度 특히 石油依存度가 深化되어 왔음이 周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油價下落后은 企業의 原價節減을 招來하여 全般

의인 産業活動을 活性化시킬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즉 油價下落→個別企業의 費用 또는 原價節減→企業生産活潑→投資 및 雇傭의 增大→産業活動活性化의 過程을 거치게 될 것이다. 企業의 原價節減은 특히 에너지多消費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回復 내지 強化시킬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는 美國 및 日本 등 先進國에 비하여 에너지節約 投資가 未洽한 實情이었으므로 油價下落에 따른 相對的 報酬은 오히려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油價下落에 따른 産業部門別 影響을 大別하면, 油價下落으로 인한 好調産業과 惡化産業으로 区分할 수 있다.

우선 好調産業으로는 原價節減效果가 큰 産業으로 鐵鋼, 非鐵金屬, 非金屬鉱物, 石油化學, 化纖 등 에너지多消費業種을 指摘할 수 있다. 또 油價가 下落하면, 內需增大가 期待되는 産業에는 自動車, 鐵鋼, 非鐵金屬, 機械, 시멘트 등으로 이들 産業은 關聯需要産業의 活性化와 國內 建築景氣의 浮場에 힘입어 國內 需要가 增加하게 될 것으로 予想되고 있다. 輸出好調가 期待되는 産業은 電子, 신발, 타이어, 織物類 등으로 先進國 景氣回復에 따른 海外需要의 增加를 期待하고 있다.

한편, 油價가 下落함으로써 惡影響을 받게 될 産業으로는 對産油國 輸出比重이 높은 産業으로써 輸出減少가 予想되고 있다. 특히 對中東 輸出依存도가 큰 시멘트, 合纖織物, 鐵鋼材 등 品目の 輸出減少가 予想되고 있다.

○總輸出中 對中東依存度

시멘트	合纖織物	鐵鋼材
48.0%	18.4%	15.9%

또한 油價下落이 계속되면 産油國의 石油收入이 減少하게 되고, 이는 곧 投資減少 및 建設工事 遲延, 또는 取消事態를 誘發할 우려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82年末 海外建設 受注殘額이 무려 235億달러에 達하고, 이中 對中東點有率이 85%나 되는 우리 나라로서는 海外建設業의 沈滯가 不可避해 질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油價가 下落됨으로써 惹起되는 衝擊을 「逆오일쇼크」라고 하며, 이는 정도에 따라 <表-2>와 같이, 区分하여 볼 수 있다.

3. 에너지部門

油價가 下落하면, 에너지部門이 가장 敏感한 反應을 보일 것이 사실이다. 왜냐 하면 現今의 에너지政策이나 에너지情勢는 石油과 非石油로 나누어지는 보이지 않는 巨大한 区分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石油의 比重 역시 그만큼 至大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에너지政策은 價格政策·需給政策·開發政策 모두가 政府의 計劃과 主導 下에 進行되어져 왔기 때문에 긴급한 에너지環境變化時 各 部門別 에너지産業이 積極적이며, 能動的으로 狀況 變化에 對處하지 못하고 政府의 後続措置만 기다리고 있는 實情이다.

油價下落이 精油産業에 미치는 影響만 보더

<表-2> 逆오일쇼크의 內容

段階	産油國	一般의 現象	國內 波及 效果
I	○油價下落	○石油需要增加 ○代替에 너지開發 의욕 감퇴	○石炭産業 需要減退로 運營難 加重 ○代替에 너지 開發 不振 ○에너지消費節約의 소홀
II	○石油收入減少 ○石油剩餘資金의 減少	○國際金融市場의 不安定 ○유리Market에 오일·머니의 流入 不能 ○國際金融機關의 與信管理 強化	○外資借入與件의 不利 - 加算金利(Spread)의 擴大
III	○輸入制限 ○經濟開發計劃의 縮小 내지 變更	○對産油國 輸出停滯 ○世界不況回復의 지연	○中東海外建設工事의 遲延 또는 取消 ○對産油國 商品輸出의 減少

라도 原油價 引下分을 国内 製品價에 어떻게 反映(Pass-through)시키느냐에 따라서 精油産業에 대한 波及效果가 달라질 수 있다. 引下分 모두를 製品價에 反映시키게 되면, 그 동안 石油類價格의 高價維持로 인한 石油代替現象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油類需要 增加와 함께 精油産業의 稼動狀況이 活潑해 질 것이다. 그러나 原油價 引下分中 상당部分을 基金 또는 關稅 등으로 徵收하게 될 경우, 低下되어 있는 精油産業의 稼動率(82年末: 60% 水準)을 提高시키고 나아가서 精油産業의 自生的 體質強化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現今의 油價下落事態가 長期化되지 않을 1~2年間의 一時的 現象으로 判斷되기 때문에 또 다시 到來할 지도 모르는 石油波動을 防止하기 위해서라도 效率的인 油價引下政策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油價下落時 石炭産業은 에너지源代替現象(石炭 → 石油 또는 가스)에 따른 需要減退로 經營收支가 더욱 惡化될 展望이다. 最近 脫石油政策의 持續的 推進으로 發電用, 産業用, 民需用 石炭需要가 급격히 增加해 왔으나, 油價가 下落됨으로 인하여 民需用이 主宗을 이루는 国内 無煙炭需要는 크게 減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国内 石炭鑛業은 販賣不振과 貯炭過多로 인한 經營難의 加重으로 国内資源開發 擴大라는 에너지政策 基本方向에 부응하지 못 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原油價가 下落하는 등 國際에너지 情勢가 安定됨에 따라 代替에너지開發이 不振해지고 에너지節約을 위한 努力이 소홀해 질 可能性이 커지고 있다.

Ⅲ. 低油價時代의 에너지政策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今番의 油價下落이 우리 나라에 미칠 影響은 대체로 經濟 産業全般에 걸쳐 良好하게 나타날 것이나, 에너지部門에는 狀況變化에 따라 매우 複合的으로 作用할 것으로 보여 에너지政策의 伸縮的 対応이 要望되고 있다. 즉 油價下落의 幅이 클 경우, 油價下落分을 全額 最終 製品價格에 反映함은 石炭産業, 代替에너지開發事業, 에너지節約의 推

進, 그리고 油價再上昇 時의 適應困難 등을 考慮할 때 得보다 失이 많을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油價下落에 따른 余裕資金中 一部를 基金 등으로 吸收하여 適正管理를 하여야 할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다. 다만 油價下落現象의 短期性과 不確實性을 감안하면, 새로운 管理制度의 新設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既存의 制度를 活用하여 運營하는 것과 이 基金의 使用 用道가 에너지部門 内部에서 重點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1. 精油産業의 健全한 育成을 위한 好機會로 活用

民間經濟主導의 運營方式으로 轉換할 때

지금까지 政府主導의 石油價格制度和 精油産業에 대한 正府의 過度한 介入은 精油會社의 經營合理化 努力에 間接的인 沮害要因이 되었고, 國際石油情勢에 彈力的·能動的으로 처處할 수 있는 精油會社의 適應力 培養에도 하나의 障礙要因이 되어 왔다. 政府는 高油價時代를 效率的으로 克服하고 무엇보다도 國民經濟 全体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最小化하기 위하여 政府主導의 에너지政策 運營方式을 採択하여 왔으나, 이는 規模가 방대해진 精油産業에 대한 統制와 責任이 모두 政府에 轉嫁되기 때문에 이 方式이 계속되는 것은 不可能한 實情이고 精油會社들도 여러 가지 不確實要因들로 인하여 國民들로 부터 의혹(?)받는 企業이 되어온 것이 事實이다. 이제 油價가 下落하여 國民의 負擔이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時點에 있기 때문에 市場經濟原理에 立脚한 民間經濟主導 運營方式을 이 時期에 導入하여 에너지政策을 推進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즉 可及的 政府의 規制를 縮小하고 모든 与件變代에 精油會社가 自體的으로 처處해 나가는 方案이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精油産業의 體質強化

低油價時代를 活用하여 精油産業의 體質을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原油導入의 경우, 精油社의 自体確保能力을 提高하여 精油會社가 直接

原油를 導入함은 물론 世界原油市場變化에 能動的으로 対応할 수 있도록 導入形態를 漸進적으로 G-G base에서 D-D base로 轉換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個別精油社는 海外石油精報體制를 構築하여 精油社 스스로의 原油導入能力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国内精油会社의 가장 큰 当面課題인 크래킹 및 脱黃施設을 위한 投資財源을 위한 投資基盤의 造成도 이번 機會를 통하여 講究해야 할 것이다.

歪曲된 油價構造의 是正

油價下落 등 國際石油市場의 安定勢는 歪曲된 国内 油價構造를 改善하여 國際化 趨勢로 유도하는 좋은 契機가 된다. 現在 우리 나라의 價格構造는 國際水準과 比較하여 볼 때, 燈油·輕油는 낮고, 벙커-C油는 높은 水準에 있는 등 歪曲되어 있어서 需給上의 不均衡을 招來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이미 '82. 3. 11 油價引下와 '83. 2. 6 油價引下措置를 통하여 国内石油類 價格構造調整을 꾀하였으나, 아직도 合理的 改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向后 原油價가 下落하면 国内價格이 國際水準을 上廻하고 있는 벙커-C油 등 産業用燃料는 大幅 價格을 引下시키고, 国内價格水準이 國際價格水準보다 낮은 燈油·輕油 등은 引下幅을 縮小시키는 등 彈力的인 價格引下政策을 取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價格構造上 政府部門 費用이 차지하는 比重이 너무 높은 점이나 나프타價格의 歪曲 問題도 점차 是正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脱石油政策의 伸縮的 運營

第2次 石油波動 以後 우리 나라 에너지政策의 核心은 石油依存度 減縮에 있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長期的으로 보아 이와 같은 努力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油價가 계속 下落할 경우, 石油依存度 縮小 計劃의 無理한 推進은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직 着工에 들어가지 않은 原子力發電所 11, 12 号機의 建設計劃을 延期한다거나, 現在 建設中

인 石油代替發電所 12基(784萬KW)의 建設工期를 延長하는 등 石油代替電源開發計劃을 伸縮性 있게 調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産業體의 有煙炭 使用擴大計劃과 이에 따른 石炭輸入計劃 등도 再調整 되어야 할 것으로 判斷된다.

○ 石油依存度 縮小計劃

1981	1982	1986 (計劃)
58.4%	57.8%	46.2%

3. 에너지節約 및 利用合理化의 持續的 推進

世界的인 油價下落現象은 消費國의 対応, 여하에 따라 그 期間이 길어질 수도 短縮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즉 低價格에 따른 石油 需要의 急增現象이 유발되면, 石油價格은 곧 다시 上昇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反하여 油價가 下落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節約을 계속 推進하여 石油消費를 抑制해 나간다면, 現今의 油價 安定勢는 오랫동안 持續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인 現点에서 石油價의 安定을 藥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石油의 可採年數는 불과 30年 정도에 不過하기 때문에 에너지消費節約

利用合理化를 위한 努力은 持續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節約 施設資金 및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의 財源擴充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4. 石炭産業 및 代替에너지産業의 支援策 마련

油價引下分의 一部를 基金 등으로 吸收하여 「逆오일쇼크」를 입은 에너지産業, 部門을 위하여 支援하여야 한다. 특히 石炭産業은 国内 生産基盤이 脆弱하고, 增産이 限界에 達하고 있을 뿐 아니라, 大部分 小規模의 炭鉞들에 의하여 生産活動이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油價下落에 따른 石炭需要減退現象이 일어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予想되고 있다. 따라서 国内 唯一의 賦存資源이며, 아직도 民需用 에너지源의 主宗이 되고 있는 石炭生産을 위

하여 效率的이며 綜合的인 支援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好轉된 海外資源開發 進出機會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資源開發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代替에너지開發에 대한 投資도 持續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5. 綜合에너지産業으로의 轉換

精油産業이 企業의 繼續性原理 (going—Concern)에 따라 계속 存続하기 위하여는 外國의 메이저들이 그러하듯이 他産業分野에의 進出이 不可避해 지고 있다. 왜냐하면 石油埋藏量 自体에 限界가 드러나고 있고, 世界石油市場에서 石油

는 이제 商業性이 강한 商品이라기 보다는 戰略的이며, 政治的인 武器로서 그 眞價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內精油 産業도 점차 에너지關聯産業 分野에 進出하여 바야흐로 綜合에너지産業으로의 轉換을 模索해야 될 時點에 處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現今의 油價下落 趨勢는 이를 위한 절호의 背景이 될 것으로 보이며, 石炭産業, 가스産業, 電力産業, 代替에너지産業 등에 적극 進出할 수 있는 好條件을 提供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精油産業의 具體的인 計劃과 政府의 國家的次元에서의 配慮가 아울러 要望되고 있다. *

□ 産油國動向 □

蘇油價인하...새 價格경쟁 촉발

세계최대 産油國인 蘇聯이 지난 2월 초에 이어 석유수출가격을 再引下했다는 소식과 함께 英國이 수일내에 北海産油價의 再引下를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돌고 있어 새로운 油價引下戰爭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초 우랄産油價를 배럴당 31.5달러에서 29.25달러로 인하, 세계적 油價引下 경쟁을 촉발한 蘇聯은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基準油價를 29달러로 인하하지 하루도 못 되어서 또 다시 28달러로 1.25달러를 인하했다고 로마의 석유업계 소식통들이 전했다.

하루 1천 2백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 최대 産油國인 蘇聯은 공산국가들에 하루 2백만 배럴을 공급하고 西歐국가들에 1백만 배럴을 판매하고 있는데 蘇聯의 油價再引下는 OPEC 석유의 西歐마켓웨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OPEC 주요회원국인 나이지리아와 석유판매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非회원국이면서도 OPEC 油價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英國도 再引下압력에 직면해 있다.

마거리트 대처 英國수상은 15일 議會답변에서 「英國의 油價는 가까운 장래에 市場價格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소식통들은 이같은 말이 北海産油價의 再引下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北海産油價는 현재 30.5달러로 되어 있으나 현물시장에서 28.5달러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뉴욕에서 발행되는 플래츠오일그랜誌 발행인 헬 시페크워드씨는 英國이 수일내에 油價再引下를 단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英國이 油價를 재인하할 경우 유럽시장을 놓고 英國과 경쟁관계에 있는 나이지리아도 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OPEC가 우려하고 있는 새로운 油價인하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나이지리아는 어떤 OPEC 油價協定에서 현행 배럴당 30달러의 가격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야하야 디코 나이지리아石油相은 英國의 再引下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다리에 도달하면 다리를 건널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재인하단행의 뜻을 비쳤다.